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POLL)-낮은 국채 수익률의 시대, 2년 더 지속될 것
- ◇ (분석)-경기 침체를 신호하는 지표들
- ◇ (시장진단)-미-중 담판 초읽기..원화에 결정적 변곡점 제공할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케빈 라마르크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2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54.7	0.8%	-3.4%	-4.1%	유로	1.1368	0.0%	-0.9%	-4.4%
100엔 대비	1,070.7	0.8%	-5.1%	-6.9%	엔	107.88	-0.5%	1.6%	2.8%
유로 대비	1,313.4	0.2%	-2.8%	0.2%	위안	6.8778	-0.4%	-0.1%	-5.3%
위안 대비	168.21	0.2%	-3.8%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599.96	-0.4%	14.0%	-5.6%
코스피	2,130.62	0.2%	4.4%	-17.3%	나스닥	8,006.24	-0.3%	20.7%	-3.9%
코스닥	690.53	-4.4%	2.2%	-15.4%	S&P500	2,941.76	-0.3%	17.3%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27.83	0.6%	10.6%	-16.2%
국고채 3Y	1.472%	3.2bp	-34.5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506%	3.1bp	-37.8bp	-45.9bp	미국채 2Y	1.757%	-1.5bp	-74.1bp	60.7bp
국고채 10Y	1.596%	2.7bp	-35.2bp	-52.1bp	미국채 10Y	2.007%	-5.2bp	-68.4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8.47	1.8%	28.8%	-24.8%	한국 5Y	31.27	0.37	-6.80	-13.74
금(현물)	1,409.10	0.7%	9.9%	-1.5%	일본 5Y	19.63	-1.53	-2.16	-3.34
TR상품지수	2,406.88	0.8%	1.5%	0.0%	중국 5Y	43.12	1.09	-23.35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7 월 1 일(월)>

- 산업부, 6 월 수출입(09:00)
- IHS 마르키트, 한국 제조업 PMI(09:30)

### <2 일(화)>

- 통계청, 6 월 소비자물가지수(08: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3 일(수)>

- 한은, 6 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0:00)

### <4 일(목)>

- 한은, 5 월 국제수지(잠정)(08:00)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2 분기 동향 및 3 분기 전망)(12:00)

### <5 일(금)>

- 특이일정 없음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7 월 1 일(월)>

- 일본, 6 월 외환보유고 (1~5 일, 08:50)
- 일본, 2 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08:50)
- 일본, 6 월 닛케이 제조업 PMI (09:30)
- 중국, 6 월 차이신 제조업 PMI (10:45)
- 일본, 6 월 소비자신뢰지수 (14:00)
- 유로존, 5 월 총유동성(M3) 증가율·가계대출 (17:00)
- 유로존, 6 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17:00)
- 유로존, 5 월 실업률 (18:00)
- 미국, 6 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22:45)
- 미국, 5 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6 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지수 (23:00)
- 홍콩 휴장

### <2 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결과(13:30)
- 유로존, 5 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6 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지수 (22:45)

### <3 일(수)>

- 일본, 6 월 서비스업 PMI (09:30)
- 중국, 6 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6 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17: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6 월 챌린저해고건수 (20:30)
- 미국, 6 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5 월 무역수지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6 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22:45)
- 미국, 5 월 내구재주문 수정치·공장주문 (23:00)
- 미국, 6 월 전미 차량(트럭) 판매 (4~12 일)

### <4 일(목)>

- 유로존, 5 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휴장

### <5 일(금)>

- 일본, 5 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5 월 경기동행/선행지수 (14:00)
- 미국, 6 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21:3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상충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달러/원 환율 범위는 1145-1170 원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 결과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만큼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할 것이다.
- 하지만 이 결과는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반영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데다가 향후 협상 경로가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한편 예상치 못한 복병이 생겼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및 OLED 부품 등 세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아울러 이번 주는 국내 펀더멘털을 가능할 만한 주요 일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1월 6월 한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 수출은 3년 만에 최악의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화 약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 오는 3일에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2.6~2.7%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장 해석이 관건이다.

###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여파로 조정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는 정부가 3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해 왔지만 미-중 무역갈등,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계청은 2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다. 6월에도 소비자물가가 0%대에 머물지 주목된다.
-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따른 효과로 주식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5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POLL)-낮은 국채 수익률의 시대, 2년 더 지속될 것

벵갈루루 (로이터) - 낮은 국채 수익률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수익률이 다시 확실히 상승하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 참가한 채권 전략가들이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주요 중앙은행들이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채 수익률은 신저점으로 하락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역시 역전됐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미국 경기 침체 전 나타났던 신호이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주요 국채 수익률은 3개월 전 예상한 것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 20일~27일 실시된 조사에 참가한 70명 이상의 애널리스트들 중 대다수는 새로운 리스크들이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올란도 TD 증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의 경제 성장은 향후 10년간 1~2%대에 머물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러한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낮은 금리와 낮은 국채 수익률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낮은 국채 수익률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질문에 응답한 애널리스트 39명 중 29명은 2년 이상으로 전망했다. 10년 이상 일 것이라고 답한 애널리스트 4명과, 영원할 것이라고 답한 1명을 포함한 수치다.

나머지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은 2년까지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견해는 작년 말까지 꾸준히 긴축 기조를 유지해 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를 인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바꾸며 지지받았다.

추가 질문에 응답한 애널리스트 60% 이상은 오는 7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25bp 인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가이 르바스 제니 몽고메리 스콧 수석 채권 전략가는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이렇게 낮은 수익률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이는 금융시장이 돌아갈 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건조한 경제 지표 하에서도 이러한 금리 인하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과연 현재 국채 수익률이 낮은 수준인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12~18개월 후에 수익률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장 전략가들은 최근 몇년간 거의 10년 가까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높은 채권 수익률을 예상하면서 발을 잘못 디뎠다.

이제 그들은 그러한 전통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향후 12개월 동안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잠시 2.0% 아래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2.0%를 약간 웃돌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향후 1년 이내에 2.2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거의 3년래 가장 낮은 전망치이며 3월 조사에서 전망했던 2.8%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 많은 투자자들은 유동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국채로 몰려들며 수익률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번주 들어 사상 최저치인 -0.336%를 기록했다. 향후 1년 내에 약 0.10%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로이터가 17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이다.

르바스는 "이러한 유럽의 사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영원히 금리를 제로나 그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약속하며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전망이 다소 불안하지만 적어도 유럽에서 이는 기본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분석)-경기 침체를 신호하는 지표들**

(로이터)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신뢰가 하락하고 중앙은행들이 부양책 확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떤 지표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가장 정확하게 미국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는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미국의 침체를 예측하는 것에 비해 더욱 까다롭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만큼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2009년 침체 이전의 세계 경기 침체를 찾기 위해서는 1990-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빠른 경제 성장을 필요로 하는 빈곤국들을 고려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하락할 경우 이를 세계 경기 침체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타 고평가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긴장 등 "많은 하방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앤드류 밀리건 애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전략팀장은 "미국, 유럽, 중국이 모두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4% 성장률을 기록하던 2017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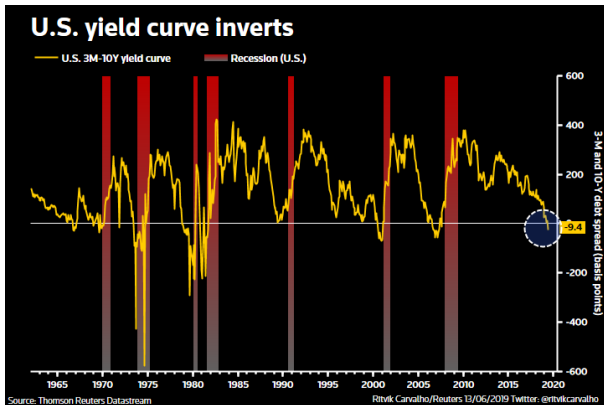
그는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끄는 여러 요소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제 침체를 예측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10개의 지표이다.

### ◆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

만약 세계 최대 경제국이 침체에 접어들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이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자

시장은 우려를 표시했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지난 50년간 거의 모든 경기 침체에 선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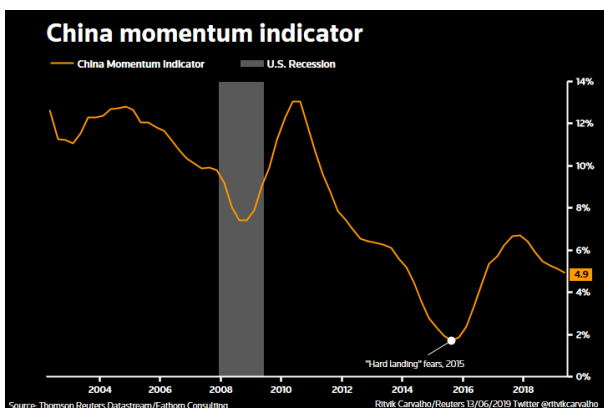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진한 중국 모멘텀

리커창 중국 총리는 경제 성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화물 운송량, 에너지 소비량, 은행 대출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합친 것이 페이텀컨설팅의 중국 모멘텀 지수이다. 중국 모멘텀 지수 하락세는 2007년 시작돼 2008년 가속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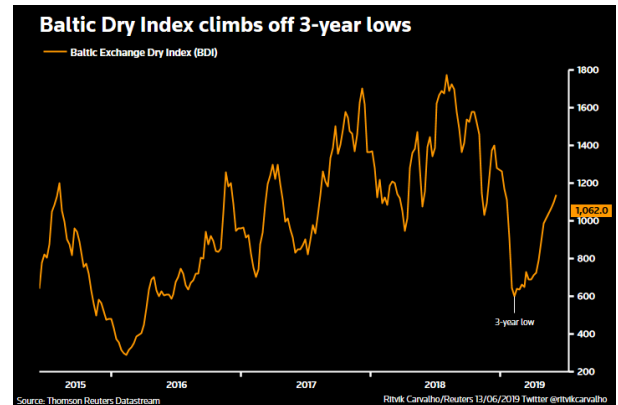
이 지수는 중국의 경착륙 우려에 2015-16년 한때 2 이하로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는 2018년의 7 수준에서 하락해 5 부근에 머물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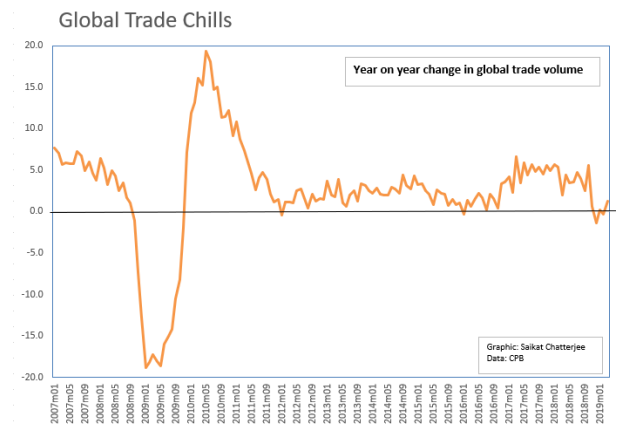
◆ 무역

만약 낮은 경제 성장률이 무역을 저해한다면 이미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건화물선 운임지수(BDI)는 지난 2월 3년래 저점을 기록했다. 현재 BDI는 전년비 약 40% 하락한 수준이다. BDI는 2008년 경제 위기를 앞두고 거의 60% 하락한 후 2010년 잠시 반등했다. 현재 BDI는 2008년 기록한 818을 웃도는 119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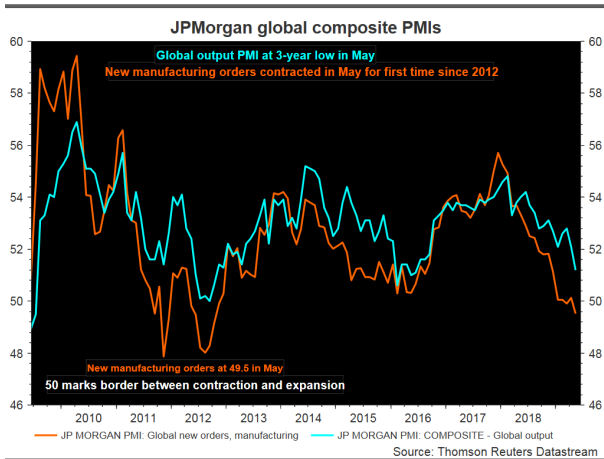
또한 글로벌 무역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무역량은 2016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비 감소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구매관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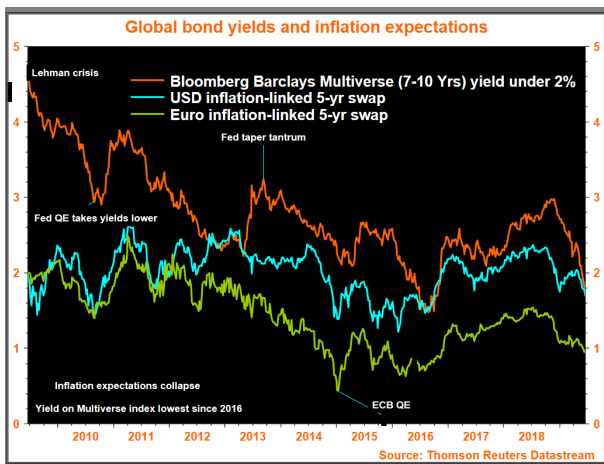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신뢰할만한 지수이다. 현재 PMI는 경제 성장과 수축을 나누는 50 선을 소폭 웃돌며 2016년 성장 우려 이후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과 채권

채권 수익률과 인플레이션은 보통 경제 성장을 이 건조할 때 상승하며 부진할 때 하락한다. 올해 시장 기준 인플레이션 지표는 급락했으며 블룸버그/바클레이스의 7-10 년물 수익률 지표는 2016 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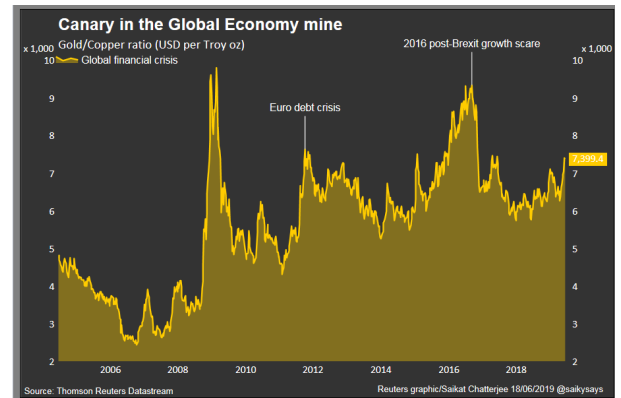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금 vs. 구리

세계 경기를 반영하는 구리는 구리 박사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또한 금이 경기 침체 시기에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금/구리 비율은 성장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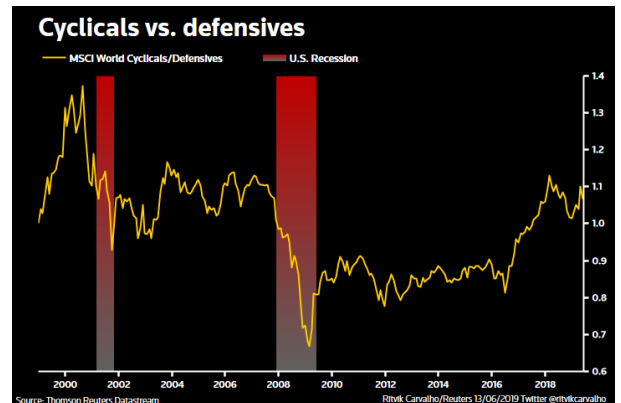
카스텐 멘케 줄리우스 베어 상품 전략가는 "현재 구리는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방어주 수요

증시는 경제가 성장할 때 좋은 성적을 내는 주식과 어려울 때 좋은 성적을 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는 순환주로, 후자는 방어주로 불린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진한 금융 여건

장기금리, 환율, 주가 등을 포함해 계산되는 금융여건지수(FCI)는 경제 성장을 위한 여건을 보여준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FCI 는 전년비 하락했지만, 증시 매도세로 2016 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낸 작년 10 월 기록은 웃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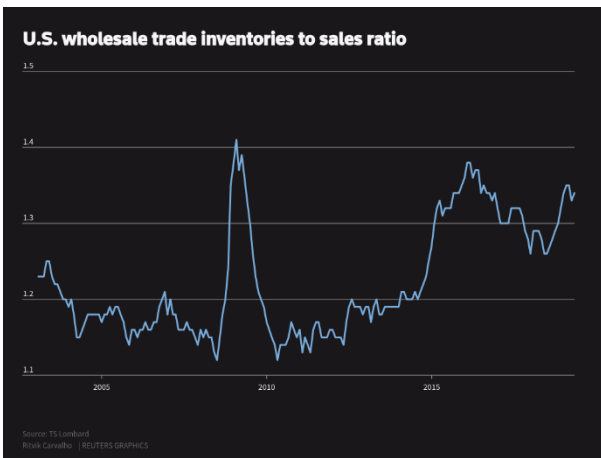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재고

상품이나 기계에 대한 수요는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 비율이 높다면 판매가 낮아 재고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초 미국과 일본의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은 3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진단)-미-중 담판 초읽기..원화에 결정적 변곡점 제공할까**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무역협상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원화가 회담 결과에 따라 의미 있는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그간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양대 경제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29일 오사카에서 열릴 트럼프-시 정상회

담 이후 어떤 국면으로 들어설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화는 미-중 무역전쟁 구도와 관련해 가장 취약한 통화로 간주돼 왔던 만큼 이번 회담 결과는 직후 원화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는 양국 정상 간의 잠정적인 휴전 선언이다. 그간 교착국면에 머물렀던 미-중 무역협상이 정상간 만남으로 재개되고, 이후 또다시 지루한 협상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오사카 회담 결과가 이런 예상대로 나온다면 일시적인 안도감에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 "휴전시 원화 강제 켈리" VS "이미 재료 반영 끝마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정상은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원화가 이런 리스크 온 무드를 반영할 통화라면 엔/원 숏 포지션을 권고했다.

도이치은행은 28일자 보고서에서 "중국에 민감한 아시아 통화들의 경우 협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주식보다 덜 반영하고 있으며, 역외 달러/위안의 경우 협상 결렬 이전 레벨인 6.75 까지 급락할 수 있다"면서 원화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화는 200일 이평선인 1140 원이 지지선이 될 수 있는데 성장과 수출, 반도체 사이클 전망이 이후 원화의 추가 회복 여부에 있어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참가자들은 이같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가격에 이미 거의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후 원화가 뚜렷한 방향성을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A 은행의 외환딜러는 "우호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거의 반영했다"면서 협상 결렬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B 은행의 외환딜러는 "협상을 앞두고 최근 원화 강세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미국 연준 스탠스 변화에 따른 달러 약세와 채권자금 수급 등에 환율이 1150 원까지 크게 하락했지만, 과매도된 측면이 분명 있다"면서 예상 시나리오 수준대로 회담 결과가 나온다면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이후 일종의 되돌림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참가자들은 양국 정상회담의 협상 결렬에 따른 원화 절하폭에 대한 우려도 이전보다 크지 않다고 본다.

C 은행의 외환딜러는 "양국 정상회담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원화가 절하폭을 대거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당국의 의지가 확인된 측면이 크지만, 무엇보다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연준 대응, 이에 따른 달러 약세 모멘텀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채권자금에 그간 달러/원이 무겁게 눌렸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 포지션은 여전히 롱 우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극적인 협상 타결이 아니고서는 원화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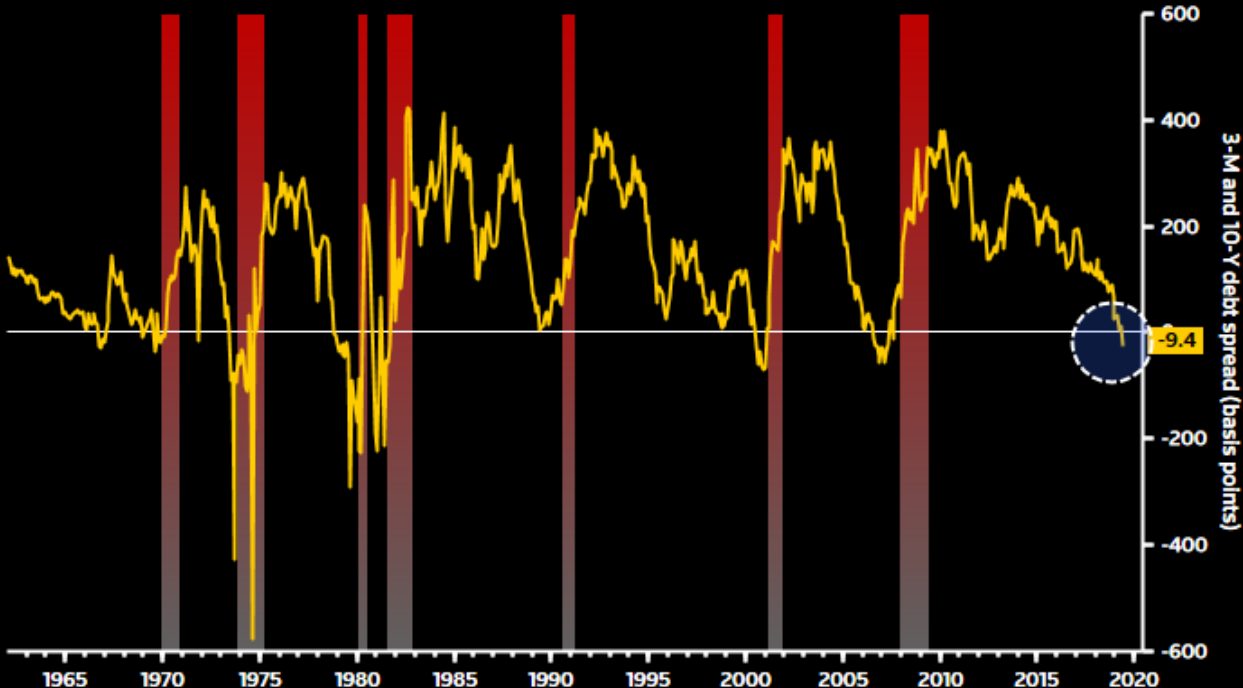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U.S. yield curve inverts

U.S. 3M-10Y yield curve

Recession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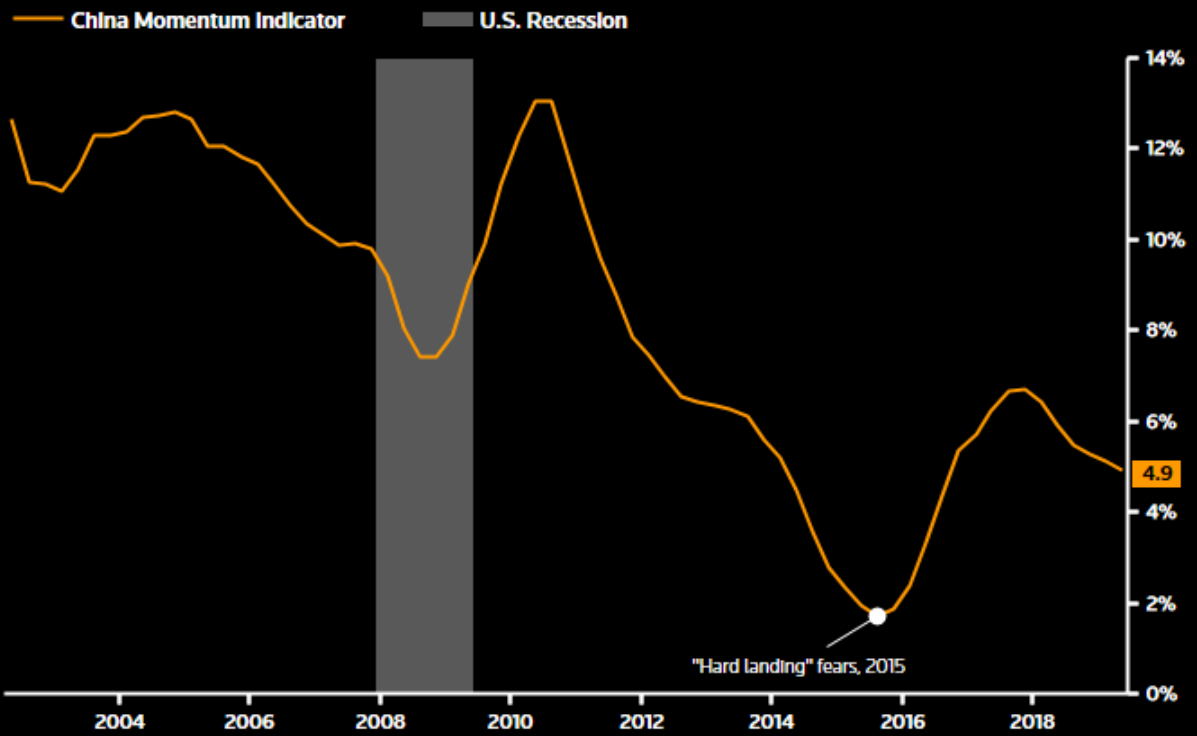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Ritvik Carvalho/Reuters 13/06/2019 Twitter: @ritvikcarvalh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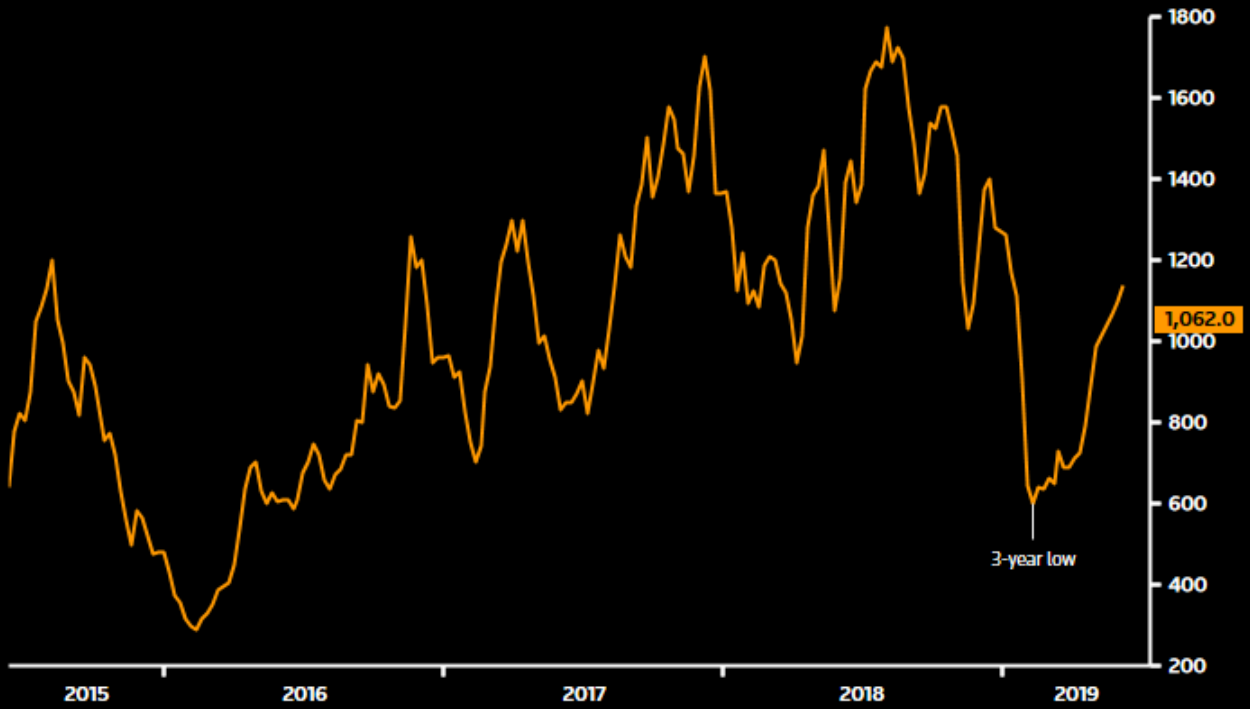
# China momentum indicator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Baltic Dry Index climbs off 3-year lows

— Baltic Exchange Dry Index (B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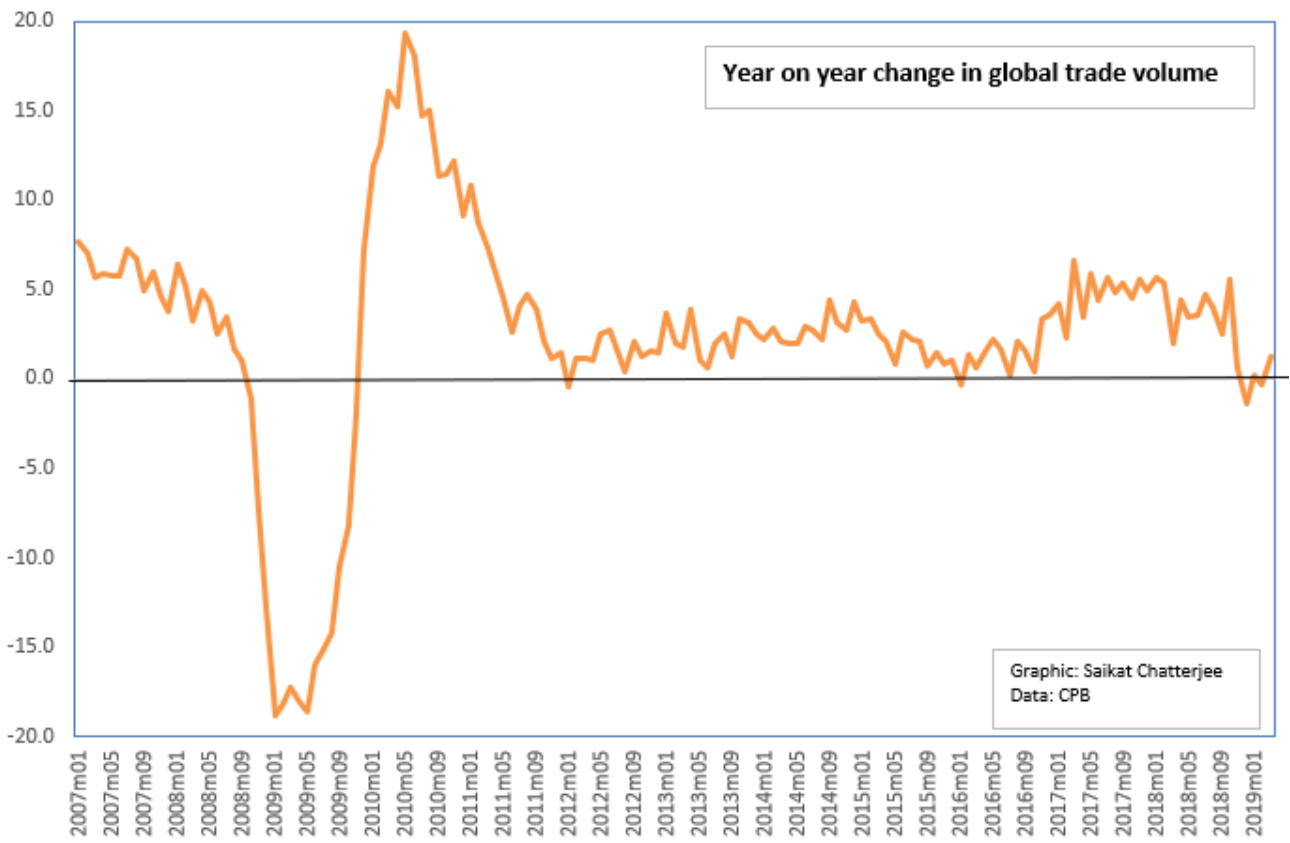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Ritvik Carvalho/Reuters 13/06/2019 Twitter @ritvikcarval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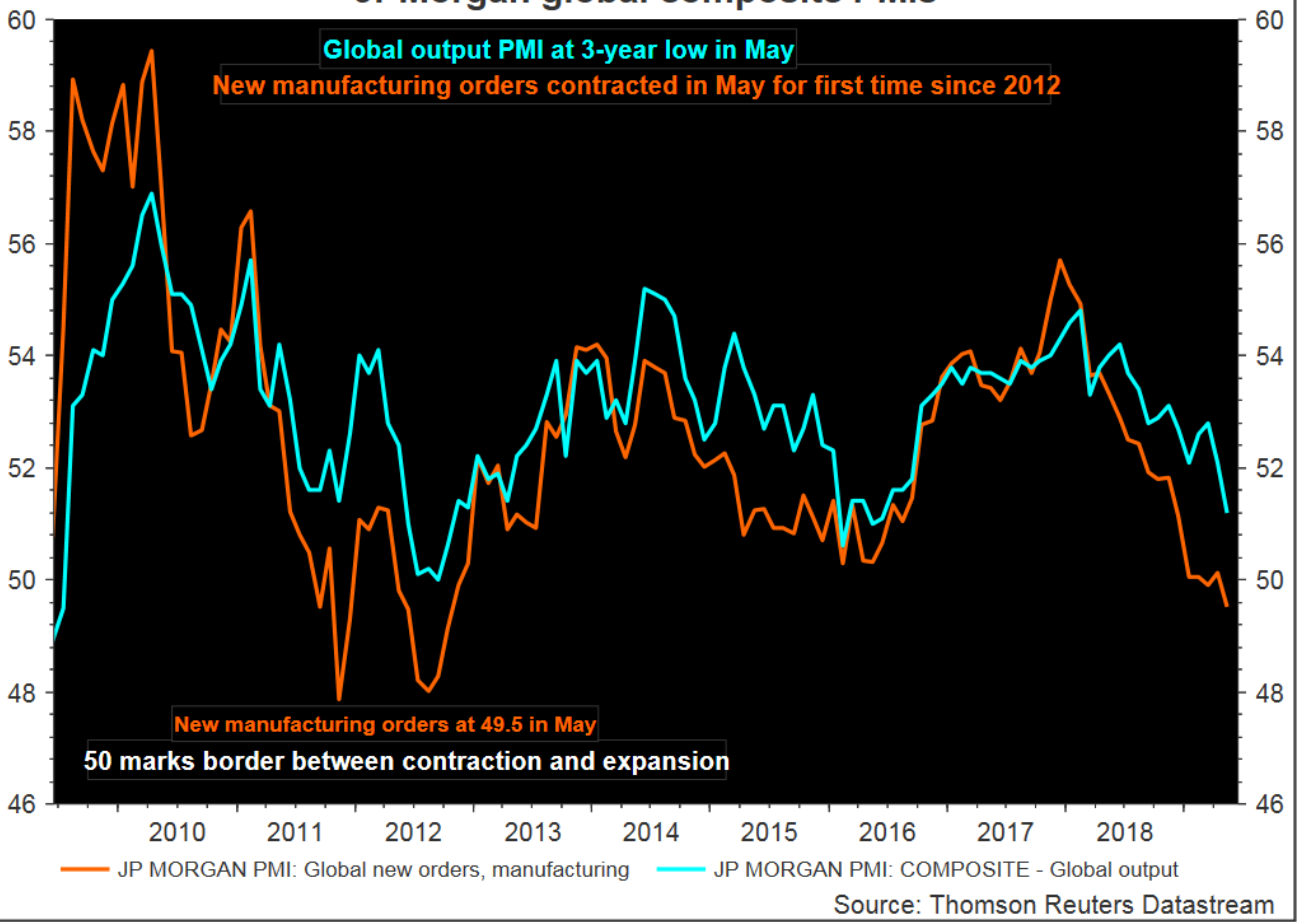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Global Trade Chills



(그림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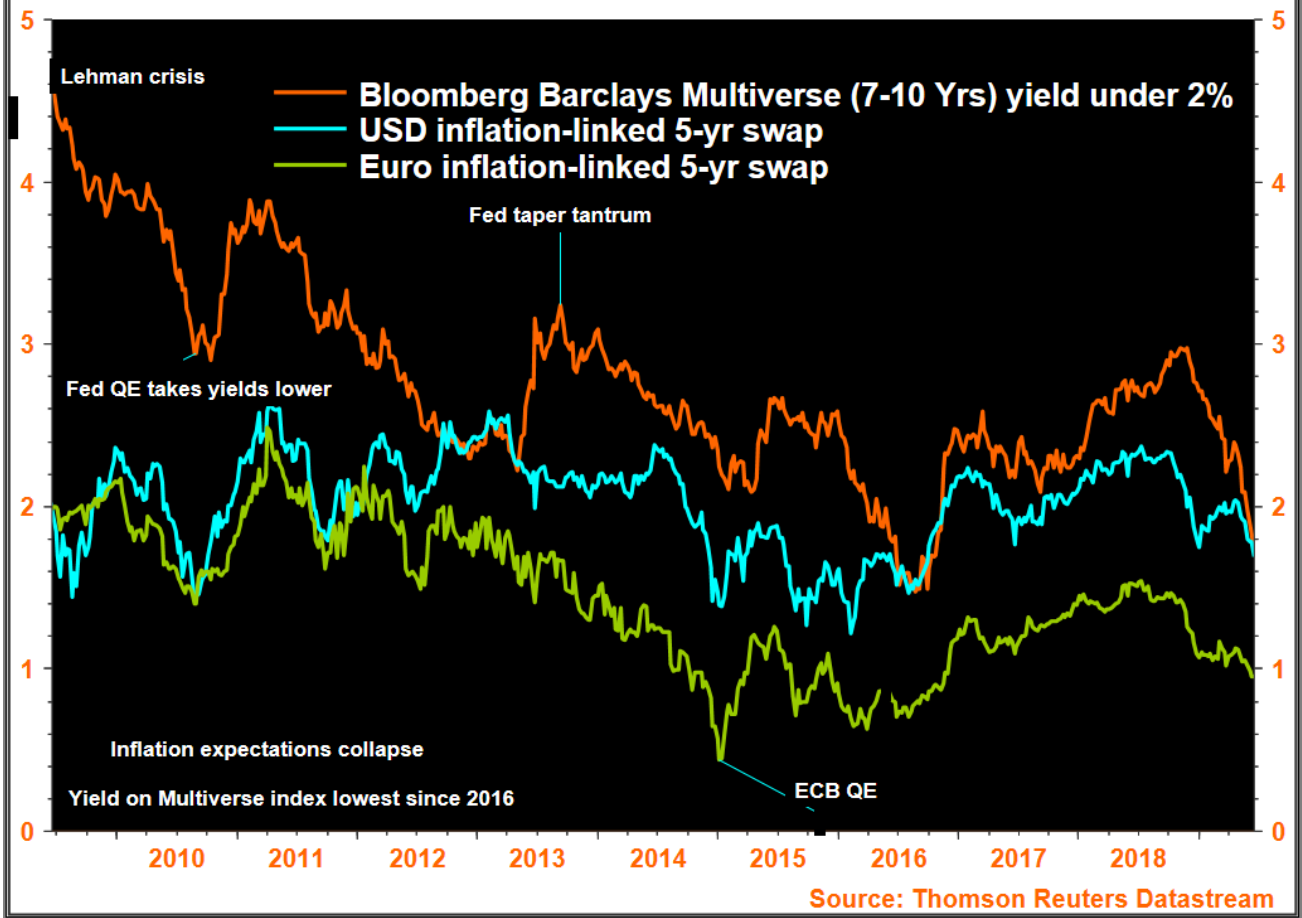
## JPMorgan global composite P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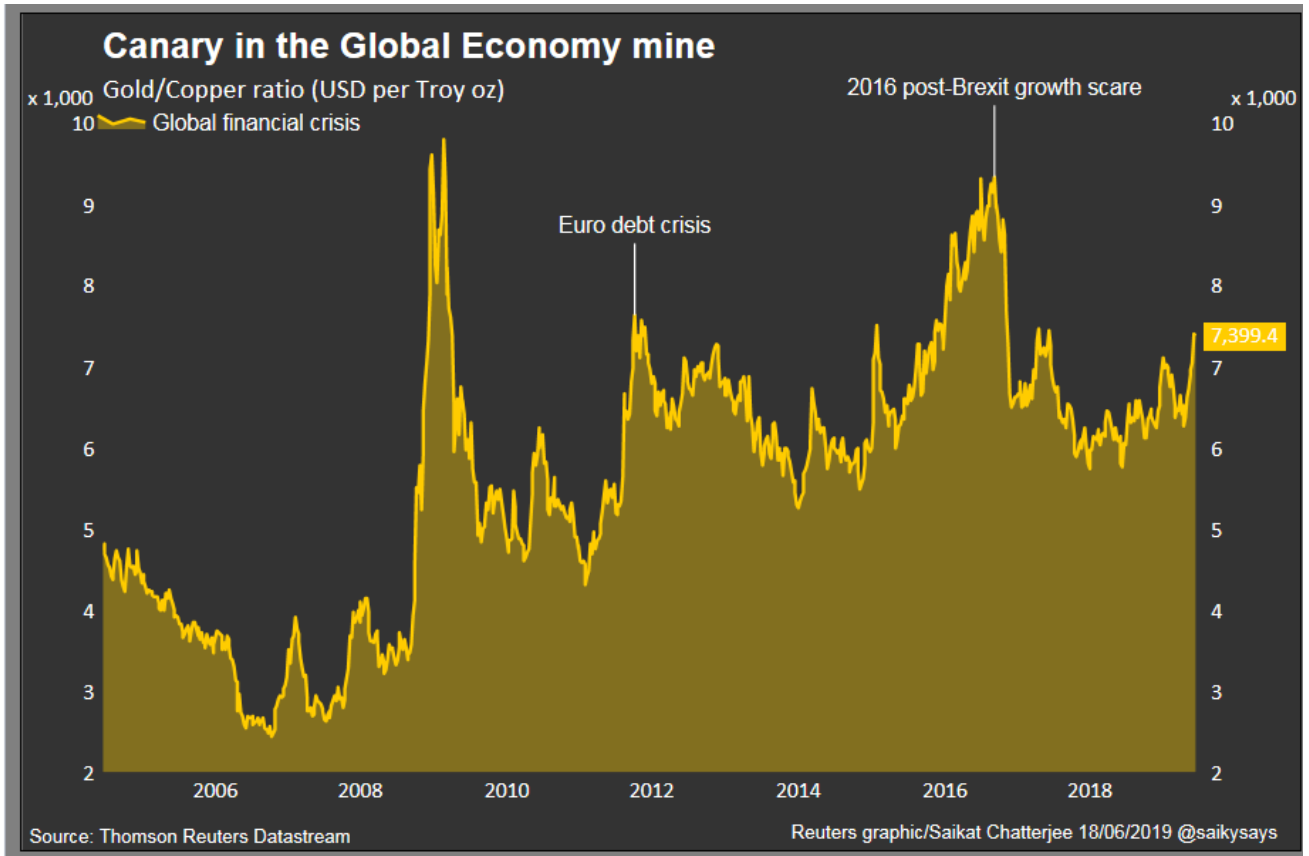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Global bond yield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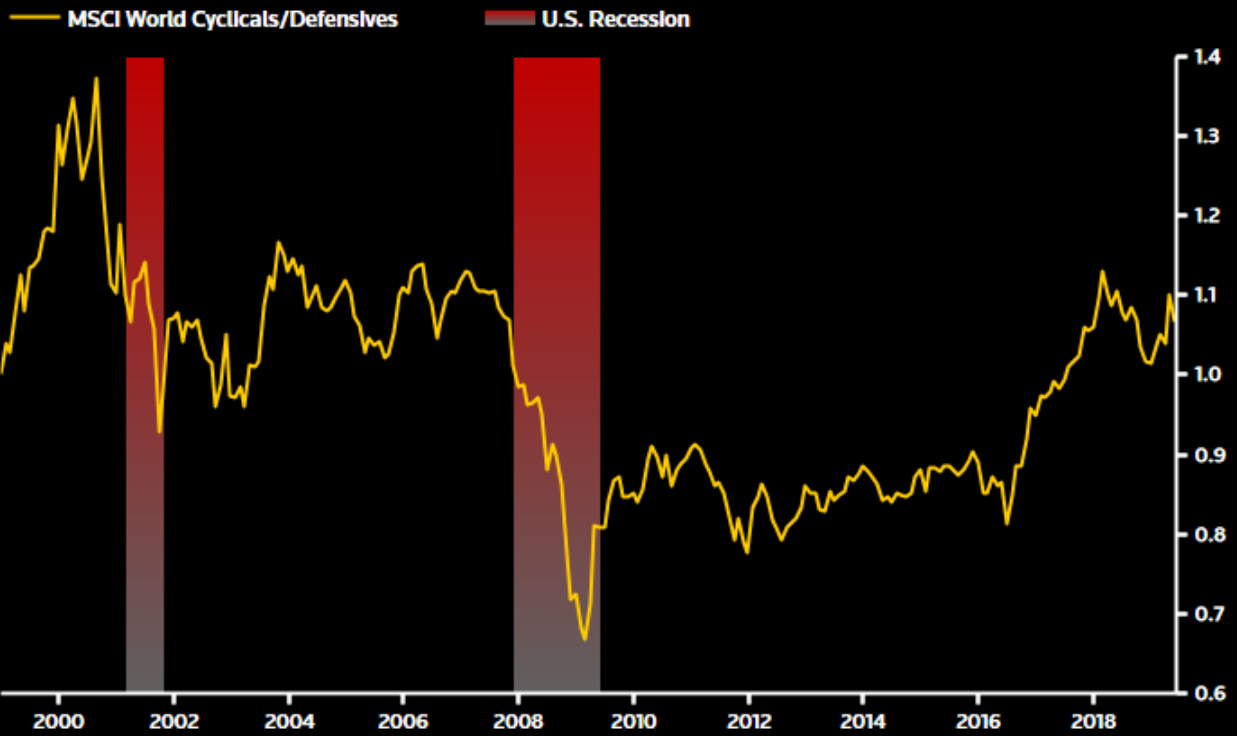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Cyclicals vs. defensives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Ritvik Carvalho/Reuters 13/06/2019 Twitter @rtvikcarvalh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Easy M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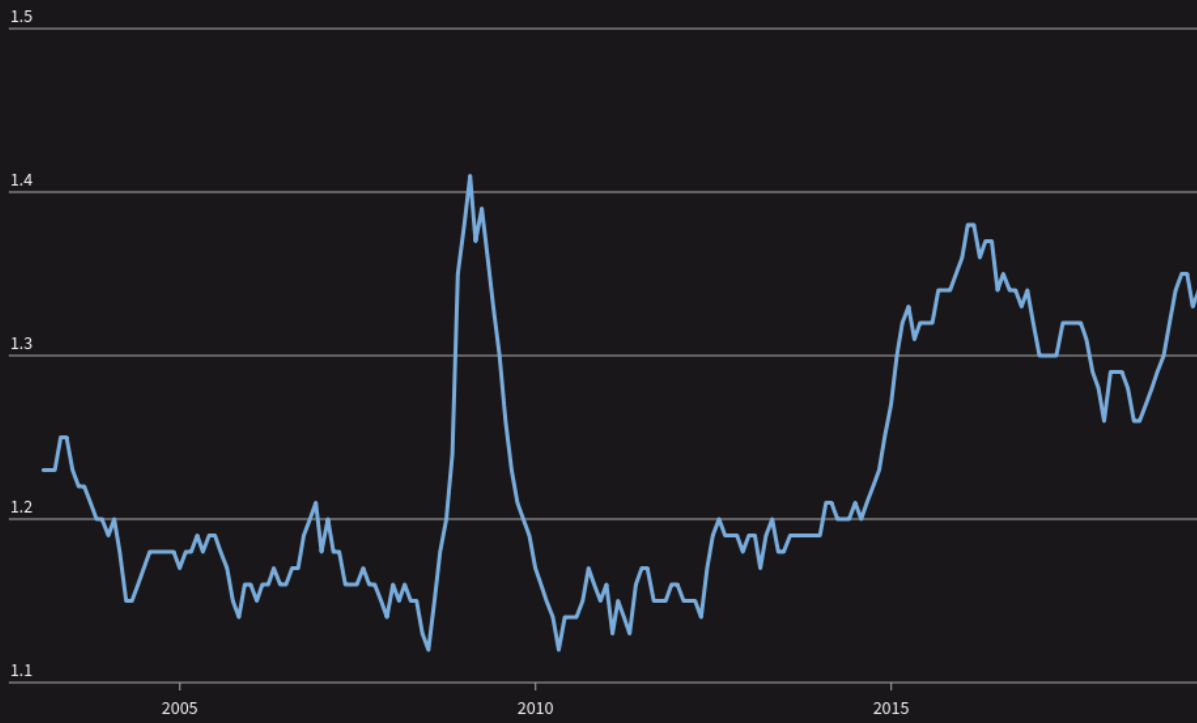
Financial conditions index. (Higher value =tightening and vice versa)



Graphic: Saikat Chatterjee  
Source: Goldman Sach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U.S. wholesale trade inventories to sales ratio



Source: TS Lombard  
Ritvik Carvalho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